

『源氏物語』 六条院의 음각(陰刻)*

-공간설정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李 慧 媛**

目 次

1. 序言
 2. 히카루겐지 정주(定住) 공간의 변화와 의미
 3. 로쿠조인 내부의 계층화
 4. 인위적 공간으로서 로쿠조인
 5. 로쿠조인의 한계—結語를 대신하여
-
-

1. 序言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¹⁾의 주인공 히카루겐지(光源氏)는 기리쓰보테이(桐壺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 신분이 고이(更衣)라는 이유로 황태자는 커녕 친왕(親王)도 되지 못한 채, 겐지라는 성(姓)을 받는 신하강적(臣下降籍)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러한 그의 신분적 한계는 스스로의 힘으로 제도상의 친왕과는 다른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²⁾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 이 논문은 2007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 문화교육 연구단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1) 『겐지모노가타리』 본문 인용은 阿部秋生 外 校注・訳 『源氏物語 一~六』(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1970~1976)에 의한다. 또한 원문 인용 시 < >안에 권명, 권수, 페이지를 차례로 명기하며,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다.

2) 본고에서는 히카루겐지가 율령천황제의 최고위자인 천황에 대해 제도를 초월한 권위를 가진 자로서 모노가타리 안에서 그려져 있다는, ‘잠재왕권’ 혹은 ‘황권’에 대비되는 ‘왕권’으로 보는 논의를 바탕으로 히카루겐지의 존재양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로 그가 세운 권위의 대표적인 표상이 ‘로쿠조인(六条院)’이라는 새로운 왕국의 창설이다.

히카루겐지는 후지쓰보(藤壺)와의 밀통으로 태어난 레이제이데이(冷泉帝)의 친부라는 비밀 속에 준(準) 태상천황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에게 부여된 준 태상천황이라는 지위는 전례가 없는 것³⁾으로서 그가 레이제이데이의 힘을 바탕으로 천황과 같은 사회적 권위를 획득한 것을 나타내는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쿠조인은 그러한 사회적 지위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천황과는 다른 독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로쿠조인은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로쿠조(六条)⁴⁾에 낙성되었다는 점에서 일견 탈(脫) 정치화를 표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히카루겐지는 로쿠조인이라는 세계에 황통이라는 사회적 논리에 밀바탕을 둔 온나산노미야(女三の宮)를 안주인으로서 받아들인다. 이는 히카루겐지가 자신이 건립한 로쿠조인에 ‘신분’이라는 사회적 논리를 개입시킨 것으로 그가 가진 권력과 혈통에 대한 집착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권력과 혈통에 대한 욕망은 온나산노미야의 로쿠조인 편입 이전인 로쿠조인 조성 계기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히카루겐지 지배체제의 확립을 보여준다고 해석되는 로쿠조인이 가진 모순적 구조를 그 안에 배치된 여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로쿠조인이라는 공간이 가진 모순적인 측면이 결국 히카루겐지에게는 어떠한 위험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살펴 히카루겐지 세계의 쇠락과 조락의 전조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3) 그해 가을, 태상천황에 준하는 지위를 얻으시어 녹봉이 늘고 권리 등 모든 것이 부가된다. 이러한 지위를 받지 않더라도 세상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건만, 역시 드문 예를 그대로 따라 상황에 딸린 관료 등도 임명되고 각별하게 위세당당하게 되어 궁궐에 출입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한다.(その秋、太上天皇の准ふ御位得たまうて、御封加はり、年官年爵などみな添ひたまふ。かからでも、世の御心になはぬことなけれど、なほめづらしかりける昔の例を改めて、院司どもなどなり、さまことにいつくしうなり添ひたまへば、内裏に参りたまふべきこと難かるべきをぞ、かつは思しける。〈藤裏葉(3) 445〉)

4) 헤이안쿄(平安京)은 중국의 도성을 모방하여 조방제(条坊制: 대로·소로로 나뉜 바둑판 모양의 도시 계획)라 불리는 도시계획을 따라 구성되었다. 동서로 약 4.5킬로미터, 남북으로 약 5.3킬로미터의 장방형 모습이었는데 그 북부중앙에 궁궐 정문이 스자쿠(朱雀) 문에서 남쪽으로 뻗은 스자쿠 대로에 의해 좌우로 이분할 되고 종횡으로 뻗은 대로·소로에 의해 구획되었다. 『겐지모노가타리』에서 히카루겐지의 니조인(二条院), 고키텐 황후(弘徽殿太后)의 니조 궁(二条宮), 후지쓰보(藤壺) 중궁의 산조 궁(三条宮), 온나산노미야(女三の宮)의 산조 궁(三条宮), 유기리(夕霧)의 산조 저택(三条殿) 등 주요 저택은 니조에서 산조에 집중되어 있고 이 지역이 최상층 귀족의 거주권으로 인식되었다. 로쿠조(六条)는 폭포 같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 별궁이나 별장이 많이 지어졌다. (林田孝和外編『源氏物語事典』[大和書房 2002]의 <平安京>항목 참조)

2. 히카루겐지 정주(定住) 공간의 변화와 의미

자신의 양녀인 사이구(齋宮)를 레이제이의 후궁으로 입궐시킨 히카루겐지는 그녀의 중궁 입후와 동시에 다이조다이진(太政大臣)으로 승진하게 된다.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히카루겐지는 마치 자신의 압도적인 권세를 가시적으로 보이길라도 할 요량인양 로쿠조인 조영에 돌입하게 된다.

(히카루겐지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졌는데, 이왕이면 넓고 볼 만하게 지어서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어 안타까운, 산마을에 사는 사람 등도 모여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로쿠조쿄고쿠(六条京極) 근처에 중궁이 물려받은 구 저택 근처로 네 정(町)⁵⁾을 차지해서 짓게 하신다.

(静かなる御住まひを、同じくは広く見どころありて、ここかしこにておぼつかなき山里人などをも、集へ住ませんの御心にて、六条京極のわたりに、中宮の御旧き宮のほとりを、四町を占めて造らせたまふ。〈少女(3) 70〉)

저택이라는 것은 고대의 제왕과 영웅에게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지어진 권력 시위(示威)의 상징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네 정(町)을 차지하여 지은 로쿠조인은 그 크기에서 이미 권력의 표징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사계절을 표방하여 네 정을 차지하여 낙성한 로쿠조인이 보여주는 규모의 거대함은 섭관정치 극치를 보인 권세가,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저택 규모와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당대 최고의 권세가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저택인 쓰치미카도도노(土御門殿)가 두 정(二町)을 차지하고 있었다⁷⁾고 하니 네 정을 차지한 로쿠조인의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로쿠조인이라는 개체가 가지는 육중함이 그대로 모노가타리 세계 속으로 침투하였을 것은 당연하며 이는 히카루겐지의 권세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로쿠조인으로 대표되는 히카루겐지의 영화(榮華)는 그가 머무르는 공간과 궤를 같이 하여 표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니조인(二条院), 니조의 동쪽저택(二条の東院), 그리고 로쿠조인을 들 수 있다. 먼저, 니조인과 니조의 동쪽저택에 대한 서술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a. 궁궐에서는 원래 어머니가 기거하시던 시게이사(淑景舎)를 (히카루겐지의) 방으

5) 현재 정(町)이라고 하면 약 360척정도의 길이 또는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그러나 헤이조쿄(平城京)와 헤이안쿄(平安京)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길거나 커서 400척정도가 된다.

6) 池田善孝 「源氏物語の方法—二条の東院と六条院」 『国語と国文学』 1996.6, p.11.

7) 池田節子 「いまめかし考—玉鬘十帖の光源氏—」 『新物語研究 3 物語<女と男>』 有精堂 1995, p.294.

로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노보들이 그대로 히카루젠지를 모시게 했다. 기리쓰보 고이의 친정 저택은 (천황께서) 수리 담당과 기물 담당에게 명을 내리시어 둘도 없이 멋지게 고치게 하신다. 원래 나무나 석가산의 배치 등이 풍취가 있던 곳이었는데 연못을 넓게 파서 아주 대단히 멋지게 짓는다.

(内裏には、もとの淑景舎を御曹司にて、母御息所の御方の人々、まかで散らさずさぶらせたまふ。里の殿は、修理職、内匠寮に宣旨下りて、二なう改め造らせたまふ。もとの木立、山のたずまひおもしろき所なりけるを、池の心広くなして、めでたく造りののしる。〈桐壺(1) 126〉)

b. 니조인의 동쪽에 있는 저택은 돌아가신 아버지 기리쓰보인의 유산이었는데 그것을 둘도 없이 멋지게 고치게 하신다. 하나치루사토(花散里) 등처럼 만나지 못해 안쓰러운 사람들을 살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어 조영하신 것이다.

(二条院の東なる宮、院の御処分なりしを、二なく改め造らせたまふ。花散里などやうの心苦しき人々住ませむなど、思しあててつくろはせたまふ。〈潯標(2) 274~275〉)

인용a에서 알 수 있듯이, 기리쓰보테이는 히카루젠지가 궁중에서 기거할 곳을 마련하고 어릴 적 살던 곳도 개축하여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히카루젠지가 사다이진(左大臣)의 딸인 아오이노우에(葵の上)와 결혼한 후, 기리쓰보테이는 니조인을 히카루젠지의 정주(定住) 공간으로 마련해 주었다. 여기에서 니조인 개축은 사다이진이라는 후견인을 얻음으로써 권력의 중심구도 속에 편입된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히카루젠지 인생의 발판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니조의 동쪽 저택 개축은 히카루젠지의 아들인 레이제이(冷泉)의 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히카루젠지는 레이제이 즉위 후 주나곤(中納言)에서 나이다이진(内大臣)으로 승진하였고 이러한 그의 지위변화와 보조를 맞추어 개축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개축은, 첫 번째가 기리쓰보테이의 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히카루젠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차 개축은 아버지 기리쓰보테이가 마련해 준 히카루젠지의 발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차 개축은 히카루젠지 스스로가 만든 영화를 나타내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금기를 범한 것일지언정 후지쓰보와의 사이에 낳은 레이제이를 통해 왕권의 과정을 이행해나가는 히카루젠지에게, 스스로가 주도한 이차 개

8) 니조인은 이후 3부 세계에서 니오우미야(匂宮)의 저택으로 모노가타리에서 재등장한다. 니오우미야는 히카루젠지의 딸인 아카시(明石) 중궁의 아들로 3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유력한 황위계승자임이 언급되고 있다. 히카루젠지의 자손이자 유력한 황위계승자인 니오우미야가 히카루젠지 세력의 발판이었던 니조인을 물려받았다. 로쿠조인 조영 이후 모노가타리 세계에서 중심 공간에서 다소 물러난 니조인이, 3부 세계에서 히카루젠지 자손을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를 나타내는 공간으로서 다시 등장하는 것은 니조인이 히카루젠지의 권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축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권력 성장 그 자체인 것이다.

이렇게 히카루젠지의 권력 성장을 나타내는 정주(定住) 공간의 변화는 로쿠조인에 이르러 그 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양상을 달리한다. 니조인과 니조의 동쪽 저택 개축 서술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 기리쓰보테이가 명령한 경우 ‘둘도 없이 멋지게 고치게 하신다(二なく改め造らせたまふ)’와 히카루젠지가 명령한 경우 ‘둘도 없이 멋지게 고치게 하신다(二なく改め造らせたまふ)’는 그 주체가 다를 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 이렇게 주체만이 바뀌어 반복되는 문장을 통해 히카루젠지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로쿠조인의 경우에는 이 두 경우와 달리 ‘고치게 한’ 것이 아니라 ‘짓게 한(造らせたまふ)’ 것이다. 니조인 자체가 원래는 외갓집과 같은 장소였다. 그것을 후에 기리쓰보인이 히카루젠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는데, 기리쓰보인의 잔영이 남아 있는 니조인이라는 공간은 개축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한편, 로쿠조인은 아키코노무 중궁의 구 저택 근처를 중심으로 네 정을 차지해서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기리쓰보인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히카루젠지 인생의 일대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황권에서 분리시킨 천황제라는 제도와는 별개로 새로운 공간을, 귀족들이 주로 기거한 니조나 산조가 아닌 로쿠조에 창건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로쿠조인 내부의 계층화

히카루젠지는 로쿠조인이 완성되자 각각 한 곳에 여성 한 명씩 배치하기를 구상하고 서남쪽은 중궁을, 동남쪽은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 그리고 동북쪽은 하나치루사토(花散里), 서북쪽은 아카시노키미(明石の君)로 내정하고 각각 방위를 꾸미게 된다.

동남쪽의 거처에는 산을 높이 하여 봄에 꽃이 피는 나무를 온갖 종류를 모아 심고 연못도 풍취 있게 각별하므로 정원에는 오엽, 홍매화, 벚나무, 등나무, 황매화나무, 바위철쭉과 같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것만으로 일부러 심지 않고 가을의 초목을 무리 지어 조금씩 심는다...(중략)...북동쪽은 시원스러운 샘이 있어서 여름의 나무그늘을 고려하여 만들었다. 앞 정원에는 대나무 밑으로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도록 하고...(중략)...옛 님을 떠오르게 하는 탕자나무꽃, 패랭이, 장미, 용담 등의 꽃을 종류별로 심어서,.....

(南の東は山高く、春の花の木、数を尽くして植ゑ、池のさまおもしろくすぐれて、御前近き前栽、五葉、紅梅、桜、藤、山吹、岩躑躅などやうの、春のもてあそびをわざとは植ゑて、秋の前栽をばむらむらほのかにませたり。…(中略)…北の東は、涼しげなる泉ありて、夏の蔭によれり。前近き前栽、呉竹、下風涼しかるべく、…(中略)…昔おほゆる花橋、撫子、薔薇、くたになどやうの花くさぐさを植ゑて、…<少女(3) 72~73>)

서남쪽은 중궁이 사계절 중 우월하다고 평가한 가을로, 동남쪽은 무라사키노우에가 뛰어나다고 한 봄으로, 그리고 하나치루사토가 머무를 동북쪽은 여름의 풍경, 마지막 아카시노키미가 머무를 서북쪽은 아카시노히메기미(明石の姫君)와 헤어진 겨울풍경을 연상하여 겨울로 꾸미게 된다. 니조인과 니조의 동쪽 저택 개축 시에는 자세한 묘사가 배제된 채, ‘돌도 없이 멋지게 고쳤다’는 하나의 사건 나열에 불과했다. 그러나 로쿠조인의 경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모노가타리 안에서 자세히 그 구조가 묘사되고 있다.

사계절을 표방하여 네 정(四町)을 나누어 각 구역에 어울리는 여성을 배치한 로쿠조인은 ‘살아있는 부처님의 이상향(生ける仏の御国)’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로쿠조인이라는 공간은 선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망의 대상으로서 묘사되는 로쿠조인이 세상의 눈에 비춰지는 것처럼 단순히 동경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은 큰 공간에서 보다 작은 공간을 나누는 것이란 사실을 항상 내포한다.⁹⁾ 그런 것처럼 히카루젠지는 로쿠조인이라는 공간을 새로이 창출하면서 여러 여성들을 한 공간에 집중시키되, 그 안에서 다시 공간을 나누어 여성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로쿠조인 설립의 표면적 목적은 흩어져 있는 여성들을 자신이 있는 곳에 모이게 한다는 군집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결국 다시 분리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 여성에게 어울리는 풍경(風情)을 부여한다는 미명 하에 그녀들을 분리하고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배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이다.¹⁰⁾ 따라서 로쿠조인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의 배치는 히카루젠지 세계 내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 각자에게 부여된 공간은 그 인물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 공간적 배치는 곧 그곳에 배치된 인물이 로쿠조인이라는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히카루젠지의 정주 공간이 니조에서 로쿠조로 바뀌었다는 것은 히카루젠지의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히카루젠지가 조영한 로쿠조인 세계는 그 사회의 하나의 산물로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단순히 불교적 이상향의 세

9) Jürgen Joedicke, 진경돈 역 『건축의 공간과 형태』 시공문화사 2000, p.6.

10)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88, p.26.

계 혹은 성(聖)공간이 아닌 권력의 구조층을 위풍당당하게 드러내는 공간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히카루젠지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세운 로쿠조인은 결국 그 안에서 그에 의해 배치된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은 로쿠조인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 배치됨으로써 다시 관계망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쿠조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창출, 그 창출 속에서 다시 배치되는 여성들의 거처와 로쿠조인의 사계사방구조를 연결해보면 히카루젠지의 로쿠조인 조영은 통합이 아닌 분리의 원리가 여실히 드러난다.

로쿠조인의 사계사방구조는 『겐지모노가타리』 특유의 발상이 아니라 『우쓰호모노가타리』라는 문학적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¹¹⁾ 그 선례가 되는 『우쓰호모노가타리』의 사계사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키아게(吹上) 물가 근처에 넓고 보기 좋은 곳을 찾아 골라 금은(金銀), 유리(琉璃)로 만든 대저택을 지어, 사면(四面) 팔정(八丁) 안에 담을 세 겹으로 치고 각각의 담에는 진(陳)을 쳤다, …(중략)…사방을 둘러, 동쪽 진 밖에는 봄의 산, 남쪽 진 밖으로는 여름의 그늘, 서쪽 진 밖으로는 가을의 숲, 북쪽에는 소나무숲, 사방을 에둘러 심은 초목의 모습이 범상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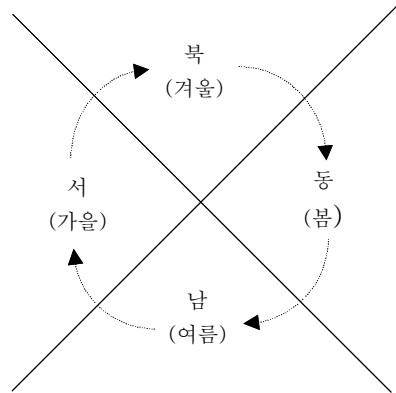
(吹上の浜のわたりに、広く面白き所を選び求めて、金銀、瑠璃の大殿を造り磨き、四面八丁の内に三重の垣をし、三の陣を据ゑたり。…(中略)…四面巡りて、東ノ陣の外には春の山、南の陣の外には夏の蔭、西の陣の外には秋の林、北には松の林、面を巡りて植ゑたる草木、ただの姿せず。) ¹²⁾

『우쓰호모노가타리』의 사계사방 구조와 로쿠조인의 사계사방 구조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쓰호모노가타리』의 경우, 동(東)—봄, 남(南)—여름, 서(西)—가을, 북(北)—겨울이라는 형태로 봄·여름·가을·겨울이 순환하고 있다. 반면 로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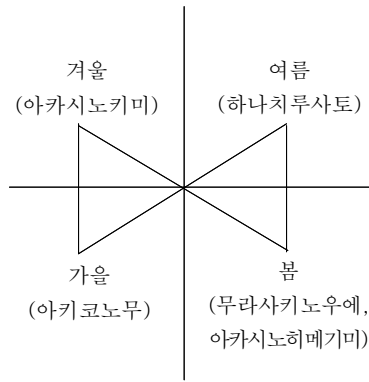
11) 미타니 에이이치(三谷栄一)는 『우쓰호모노가타리(宇津保物語)』와 『에이가모노가타리(栄華物語)』에서도 그 예를 찾아 사계사방(四季四方)의 구조는 용궁신앙과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즉, 용궁이라는 민간신앙의 형태로 히카루젠지가 자신의 공간을 창출했다는 것이다.(三谷栄一 『物語史の研究』有精堂 1967) 이러한 미타니의 논에 부연하여 노무라 세이이치(野村精一)는 사계사방의 구조는 단순히 민간 신앙의 형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고대문명에서 공간지배 사상의 패턴이 고대일본에 반영된 형태라고 보고 있다.(野村精一 「六条院の四季の町」 『講座源氏物語の世界』第5集 有斐閣, 1981 p.39) 노무라는 공간지배라는 것을 사계의 순환에 초점을 두어 로쿠조인 세계의 구조를 성(聖)공간으로서 파악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성(聖)공간이라는 가치개념은 배제하고 사계의 순환에 담긴 모순과 공간지배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12) 『우쓰호모노가타리』 본문 인용은 河野多麻校注 『日本古典文学大系 宇津保物語』(岩波書店 1959)에 의함. 본문 「吹上 上」 pp.307~308.

인의 경우에는 남동(南東)—봄, 남서(南西)—가을, 북서(北西)—겨울, 북동(北東)—여름으로 사계사방이라는 구조는 동일하나 봄·여름·가을·겨울의 순환과 방위의 흐름이 맞지 않다. 이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1) 『우쓰호모노가타리』의 사계사방



도식2) 로쿠조인의 사계사방

『우쓰호모노가타리』가 중국적 양식을 모방한 것이라면, 로쿠조인은 헤이안 시대의 미적 의식에서 중요한 계절인 봄과 가을이 건축학 상 헤이안 시대 주거의 주요부분인 남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독창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³⁾ 그러나 남쪽 중심으로 봄과 가을을 배치한 것은 일본 특유의 독창적인 구조라도 하더라도, 그런 만큼 로쿠조인 안에서 중궁과 무라사키노우에만을 중시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당연히 그 외의 방위에 배치된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구도를 낳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카시노키미라고 할 수 있다.

『우쓰호모노가타리』의 사계사방과 로쿠조인의 사계사방을 도식1)과 도식2)로 비교하여 보면 그 구도가 확연히 보인다. 『우쓰호모노가타리』의 사계사방은 그 순환이 사계절의 흐름을 그대로 지켜, 봄과 겨울이 맞닿고 있다. 그러나 히카루젠지가 설계한 로쿠조인은 사계절은 존재하나 그 순환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모녀지간인 아카시노키미와 아카시노히메기미만을 떼어 놓고 보면 계절의 순환 순서가 뒤엉켜 있는 것이 더욱 부각된다.

히카루젠지는 천문역학의 예언대로라면 중궁의 자리에 오를 딸인 아카시노히메기미를 교토로 데려오기 위해 니조의 동쪽 저택을 개축한다. 그러나 아카시노키미는 이를 거부하고 그녀의 아버지 뉴도(入道)가 마련해 준 오이(大堰)에서 아카시노히메기미와 지내게 된다.

13) シラネ・ハルオ 『夢の浮橋—源氏物語の詩学』 中央公論社 1992, pp.57~58.

겨울로 접어 들어가니, 오이(大堰) 강 근처의 거처는 더욱 쓸쓸하고 불안한 마음만 드는 나날을 지내는 것을, 히카루젠지도 “역시 이렇게 지낼 수는 없소. 그 가까운 곳(니조의 동쪽저택)으로 옮기도록 마음을 바꾸시오.”라고 권하지만, ‘그동안 마음 아픈 곳도 많았는데 그곳으로 옮겨, 히카루젠지 님의 박정함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기분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찌 말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두는 것은 좋지 않소. 내게는 생각하는 바가 있으므로 이리 두는 것은 아깝소. 무라사키노우에에게도 말해 두었더니 항상 그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데,……

(冬になりゆくまに、川づらの住まひいとど心細さまさりて、上の空なる心地のみしつづ明かし暮らすを、君も、「なほかくてはえ過ぐさじ。かの近き所に思ひ立ちね」とすすめたまへど、「つらきところ多く試みはてむも残りなき心地すべきを、いかに言ひてか」などいふやうに思ひ乱れたり。「さらばこの若君を。かくてのみは便なきことなり。思ふ心あればかたじけなし。対に聞きおきて常にゆかしがるを、…<薄雲(2) 417>)

아카시노키미는 니조의 동쪽 저택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자신이 그동안 아카시(明石), 오이(大堰) 등을 거치며 히카루젠지와 관계에서 괴로웠음을 토로한다. 또한 니조로 옮긴 이후에 히카루젠지의 냉대를 본다면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니조의 동쪽 저택으로 옮기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히카루젠지는 아카시노키미의 원망이나 괴로움을 귀 기울여 들을 여유가 없다. 그가 아카시노키미에게 니조의 동쪽 저택으로 옮길 것을 권하는 것은 아카시노키미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아카시노키미의 이동이 곧 딸인 아카시노히메기미의 이동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카시노키미가 니조의 동쪽 저택으로 옮길 뜻이 없는 것에 대해 히카루젠지는 그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권세가의 면모만을 드러낼 뿐이다. ‘내게는 생각하는 바가 있으므로(思ふ心あれば)’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카시노히메기미를 중궁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결국 모녀시간을 떼어놓는 작업에 착수한다. 모녀를 모두 옮기게 할 수 없다면 아카시노히메기미만이 라도 데려가겠다는 그의 말에 이미 아카시노키미에 대한 배려는 배제되었다.

이후, 새로운 주거공간을 건축하게 된 히카루젠지가 떨어져 지내 안타까운 아카시노키미도 모여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넓게 로쿠조인을 짓는다고 모노가타리는 서술한다. 그 구조를 잘 살펴보면, 히카루젠지의 냉대함을 보게 될지언정 아카시노히메기미 때문이라도 로쿠조인에 편입될 것이 당연한 아카시노키미와 아카시노히메기미의 거처의 격절을 간과할 수 없다. 계절의 순환대로라면 『우쓰호모노가타리』의 사계사방처럼 봄·여름·가을·겨울로 순환하여 봄과 겨울이 맞닿아 아카시노키미와 아카시노히메기미의 거처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히카루젠지의 로쿠조인은 사계만 존재할 뿐 그 순환은 지키지 않아 모녀가 확연하게 분리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결국, 아카시노히메기미의 생모로서 아카시노키미를 로쿠조인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을지라도 모녀를 로쿠조인이라는 한 공간에 모으되 계절순환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거리상의 격절뿐만 아니라 시간적 간극까지 부여하여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히카루젠지는 로쿠조인의 권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 다시 한번 두 사람간의 간격의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로쿠조인의 사계사방 구조는 『우쓰호모노가타리』의 그것보다 더 독창적일지는 몰라도 아카시노키미에게 있어 ‘괴로운 곳(つらき所)’이자,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과 신분에서 오는 차별을 느끼게 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비단, 아카시노키미만의 문제는 아니다.

처음 로쿠조인 조영을 계획할 때 히카루젠지는 ‘안타까운 산마을에 사는 사람 등도 모여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ここかしこにておぼつかなき山里人などをも、集へ住ませんの御心にて)’ 로쿠조인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산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한 곳에 함께 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은 떨어져 살던 여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한 곳에 모이게 함으로써 오히려 배제시키는 구도를 낳는다.

로쿠조인에 배치된 여성들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중궁을 포함하여 무라사키노우에, 다마카즈라, 하나치루사토, 아카시노키미이다. 그밖에 우쓰세미(空蟬)와 스에쓰무하나(末摘花)는 로쿠조인이 아닌 니조의 동쪽저택에 배치되게 된다. 히카루젠지도 로쿠조인 안을 정주공간으로 삼은 것을 감안하면, 먼저 로쿠조인에 배정받은 여성들과 로쿠조인에 배정받지 못한 여성들로 이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로쿠조인이라는 공간창출이 만들어낸 배제의 구조인 셈이다. 히카루젠지와 같은 공간에 살 자격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라는 신분과 위치를 고려한 히카루젠지 그만의 재단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쿠조인 안에서도 배제의 논리와 소외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신년을 맞이하여 여성들의 거처를 방문하는 히카루젠지를 묘사하는 부분이다.

로쿠조인의 각 지역으로 여성들이 옮겨온 후, 처음으로 새해를 맞아 히카루젠지는 각각의 여성들을 방문하게 된다. 그중에서 무라사키노우에를 가장 먼저 방문한다.

봄을 상징하는 거처의 정원에서는 특별히 다른 곳과 달리 매화 향도 발[簾] 안으로 향과 어울려 바람에 실려 오는데 살아있는 부처의 이상향으로 생각된다.

(春の殿の御前、とり分きて、梅の香も御簾の内の匂ひに吹き紛ひて、生ける仏の御国とおぼゆ。〈初音(3) 137〉)

무라사키노우에의 거처가 ‘살아있는 부처의 이상향’으로까지 여겨지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치루사토가 사는 곳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여름의 거처를 보시니, 그 계절이 아니기 때문일까? 아주 조용하게 보여서 일부러 풍류가 있게 보이려하지도 않고 기품 있게 지내고 있는 기색이 엿보인다.
(夏の御住まひを見たまへば、時ならぬけにや、いと静かに見えて、わざと好ましきこともなく、あてやかに住みなしたまへるけはひ見えわたる <初音(3) 140>)

그 계절이 아니기 때문인가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하나치루사토의 거처는 아주 조용하여 쓸쓸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하나치루사토의 모습에 대해 그 거처에 와서야 비로소 ‘기색(けはひ)’이라는 다소간의 추측을 담아 표현하고 있음을 포착한다면, 히카루겐지가 하나치루사토에게 소원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을 부연설명이라든 하듯이 위의 서술 뒤에 하나치루사토와 히카루겐지의 관계를 설명한다.

세월이 지나 두 분은 격의 없이 절실한 사이이다. 지금은 일부러 가까운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는다. 아주 친근하고 세상에 없는 오누이와 같은 부부의 인연만을 주고받으신다.
(年月にそへて、御心の隔でもなく、あはれなる御仲らひなり。今はあながちに近やかなる御あるさまもてなしきこえたまはざりけり。いと睦ましく、あり難からん妹背の契りばかり聞こえかはしたまふ。
<初音(3) 140~141>)

격의 없이 절실한 사이이나 로쿠조인에 옮겨온 지금은 일부러 가까운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는다는 위의 서술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하나치루사토의 거처가 조용하고 쓸쓸한 것은 단순히 그 계절에 맞는 여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히카루겐지와 의 관계에서 오는 적막감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로쿠조인 편입 이전에도 하나치루사토가 히카루겐지와 빈번한 만남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러 가까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은 로쿠조인이라는 공간 안에 배치됨으로써 하나치루사토가 확인할 수밖에 없고 또 확인하고 싶지 않아도 확인받는 구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쿠조인에 임시객(臨時客)¹⁴⁾의 연회를 베푼 후에 가타리테는 하나치루사토와 아카시노키미를 떠올린다.

14) 臨時客(りんじきゃく)은 헤이안 시대, 1월 23일에 섭정·관백의 집에서 대신이하 공경(公卿)을 초대하여 베푼 연회를 말한다.

이렇게 시끄럽게 말과 수레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떨어진 곳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극락정토에서 연꽃이 아직 피지 않은 기분도 이러한가 라며 마음이 좋지 않다.

(かくののしる馬車をも、物隔てて聞きたまふ御方々には、蓮の中の世界にまだ開けざらむ心地もかくや、と心やましげなり。〈初音(3) 146〉)

위 인용문에서 ‘떨어진 곳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物隔てて聞きたまふ御方々)’은 하나치루사토와 아카시노키미를 가리킨다. 연회로 시끄럽게 말과 수레가 지나다니는 화려한 로쿠조인의 모습 이면에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녀들의 심리를 언급하면서 가타리테는 무라사키노우에의 극락정토와 같은 공간과 비교하고 있다. 무라사키노우에가 사는 곳이 ‘살아있는 부처의 이상향’이라고 한다면 하나치루사토와 아카시노키미는 배제된 곳, 즉 연꽃이 아직 피지 않은 곳이다. 연꽃이 피지 않은 곳이란 ‘하품하생(下品下生)은 극락에 왕생하더라도 연꽃 봉우리 안에서 연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한다’¹⁵⁾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꽃이 아직 피지 않은 곳’이란 부분에서 그들의 출신과 히카루젠지의 대우를 엿볼 수 있으며 이렇게 소외된 그들의 마음을 가타리테는 무라사키노우에와의 비교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무라사키노우에와의 비교로 소외된 여성들을 그 시야에 넣은 가타리테가 이번에는 그나마도 로쿠조인에 포섭되지 못한 여성들에게 눈을 돌린다.

하물며 동쪽저택에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만 흘려가지만, ‘세상의 괴로운 일이 보이지 않는 산길’이라고 (니조의 동쪽 저택을) 빗대며 박정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나무랄 수 있을 것인가? 그 외에는 불안하고 쓸쓸한 일은 달리 없으니 …(중략)… 시끄러운 며칠을 보내고 나서 (히카루젠지는 니조의 동쪽 저택으로) 건너가셨다.

(まして東の院に離れたまへる御方々は、年月そへて、つれづれの数のみまされど世のうき目見えぬ山路に思ひなずらへて、つれなき人の御心をば、何とかは見たてまつりとがめむ。そのほかの心もとなくさびしきこと、はた、なければ、…(中略)…さわがしき日ごろ過ぐして渡りたまへり。〈初音(3)146~147〉)

‘할일 없이 무료하게(つれづれ)’라는 단어는 발언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의미의 차가 발생하므로¹⁶⁾ 여기서 ‘할일 없이 무료하다’는 것은 가타리테 입장에서의 서술

15) 全集「初音」p.146 두주12.

16) 光安誠司郎 「柏木と夕霧の会話における〈情況〉〈期待〉〈表現〉〈推測〉」 『物語研究2』 物語研究会 有精堂 2002, p.34.

이다. 따라서 로쿠조인의 세계와 로쿠조인이 아닌 니조의 동쪽 저택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가타리테 입장에서 로쿠조인 내부의 여성들을 비교한 후에, ‘하물며(まして)’라는 강조의 어법으로 니조의 동쪽저택에 있는 여성들이 히카루젠지의 관계에서 얼마나 배제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 기거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거처에 대해 ‘세상의 괴로운 일이 보이지 않는 산길’이라는 식으로 위안을 삼고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히카루젠지의 관계에서 그가 소원(疏遠)한 것을 달리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며 히카루젠지의 박정함 이외에는 불만이 없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히카루젠지의 대우가 그들에게 소원한 것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로쿠조인이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로쿠조인 안에 배치된 여성들에게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신년인사가 니조의 동쪽 저택에는 수일이 지나고 나서야 가능했던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로쿠조인은 로쿠조인 내부 여성들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한 공간에 집합시킨 구도에서 제외된 여성들에게 배제의 논리를 인식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히카루젠지가 로쿠조인이라는 중심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한 로쿠조인 안에서의 계층화는 물론 로쿠조인에 배정받지 못한 인물의 소외까지 노정하고 있다.

히카루젠지는 로쿠조인에 배치 받지 못한 여성들인 우쓰세미(空蟬)와 스에쓰무하나(末摘花)에게 며칠이 지난 후 찾아간다. 그렇게 찾아간 스에쓰무하나의 거처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황량한 곳은 없지만 (히카루젠지가)사시지 않는 곳의 모습은 조용하고 정원의 나무만이 풍취 있고 홍매화가 피기 시작하려는 모습을 감동하여 불 사람도 없는 모습인 것을 보시고는……

(荒れたる所もなけれど、住みたまはぬ所のけはひは静かにて、御前の木立ばかりぞいとおもしろく、紅梅の咲き出でたるにほひなど、見はやす人もなきを見わたしたまひて、… <初音(3) 149>)

스에쓰무하나가 살고 있는 동쪽 저택을 묘사하면서 가타리테는 히카루젠지가 살지 않기 때문에 풍취 있는 것이라고는 나무와 홍매화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스에쓰무하나가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 살던 거처가 아주 황폐한 곳이었음을 상기한다면 황량한 곳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녀가 이전에 거처하던 곳과 비교가 되어 그녀가 히카루젠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히카루젠지가 살지 않는 곳의 모습이기에 적막한 이곳은 하나치루사토의 공간처럼 히카루젠지의 소원함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스에쓰무하나의 거처가 특별히 내세울 풍취도 없는 것은 무라사키노우에의 거처가 ‘극락정토’로 비유된 것과

는 급격한 대조를 이룬다.

‘장소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뭐든지 친근하게 생각한다(所につけ人のほどにつけつつ、あまねくなつかしくおはしませば、〈初音(3)151〉)’라는 가타리테의 서술처럼 히카루젠지가 배치한 장소와 그 신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히카루젠지 세계 안의 계층화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스에쓰무하나는 비록 영락한 황족일지언정, 종류의 여성인 우쓰세미와 엄연히 신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히카루젠지의 비호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かやうにても、御陰に隠れたる人々多かる〈初音(3)151〉)’라는 식으로 하나의 질서로 정리되고 있다. 이는 곧 히카루젠지 세계의 계층화가 장소를 기준으로 배열되어있으며 그러한 배치는 히카루젠지가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는 로쿠조인과 로쿠조인이 아닌 니조의 동쪽 저택이라는 공간의 이분화로 한 번의 여과장치를 거친 후에 지상의 낙원이라는 로쿠조인 안에 배치된 여성들의 계층화라는 두 번째 여과장치를 통해 세부공간을 재창조한 격이라 할 수 있겠다.

4. 인위적 공간으로서 로쿠조인

이렇게 로쿠조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히카루젠지의 영화를 나타내는 공간이자, 그 스스로도 자신의 영화를 과시한 공간이다. 그러나 로쿠조인이 결국 히카루젠지가 만든 인위적인 공간이었음을 그 스스로 밝히고 있다.

가을 풀벌레의 우는 소리는 어느 것 하나 뒤처지는 것이 없지만 방울벌레¹⁸⁾가 그

17) 히카루젠지가 드러내는 로쿠조인 내부와 그 밖의 여성들의 계층화는 세말(歲末)의 옷 배분에 서도 읽을 수 있다.(〈玉鬘(3)128~130) 『겐지모노가타리』에서 복장은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신분을 드러낸다. 따라서 세말의 옷 배분에서 히카루젠지가 스스로 각각의 여성에게 배분할 옷의 색상과 모양을 결정한 것은 히카루젠지 세계 내에서 히카루젠지가 그 여성의 지위와 서열을 정한 것이며 각각의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또한 히카루젠지가 각 여성의 옷을 배분하면서 <무라사키노우에→아카시노히메키미→하나치루사토→다마카즈라→스에쓰무하나→아카시노키미→우쓰세미> 순서로 나누는 것 또한 그들의 순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全集「玉鬘」p.130 두주 참조) 옷 배분 기술의 순서에 유의하여 신년인사의 순서를 보면 <무라사키노우에→아카시노히메키미→하나치루사토→다마카즈라→아카시노키미→스에쓰무하나→우쓰세미>라는 식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18) 현대 일본어에서 ‘마쓰무시(松虫)’가 ‘귀뚜라미’이고 ‘스즈무시(鈴虫)’가 ‘방울벌레’이나 고대 일본어에서는 ‘마쓰무시(松虫)’가 ‘방울벌레’의 의미로 ‘스즈무시(鈴虫)’가 ‘귀뚜라미’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겐지모노가타리』안의 각각의 풀벌레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마쓰무시(松虫)’를 ‘방울벌레’로, ‘스즈무시(鈴虫)’를 ‘귀뚜라미’로 해석한 일본고전문학전집(日本古典文学全集)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

중에 뛰어나다고 하여 중궁께서 먼 들판을 헤치고 일부러 찾아 잡아다가 정원에 풀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는 분명히 울어냈는데 옮겨 놓으니 잘 울지 않더라 하더군요. 이름과는 달리 생명도 덧없는 벌레겠지요.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 들지 않는 깊은 산속, 먼 들판의 소나무들판에서는 목소리를 아까워하지 않고 울어대는 것도 아주 격의를 두는 마음을 가진 벌레인가 봅니다.

(秋の虫の声いづれとなき中に、松虫なんすぐれたるとて、中宮の、遙けき野辺を分けていとわざと尋ねとりつつ放たせたまへる、しるく鳴き伝ふるこそ少なかなれ。名には違ひて、命のほどはかなき虫にぞあるべき。心にまかせて、人聞かぬ奥山、遙けき野の松原に声惜しまぬも、いと隔て心ある虫になんありける。〈鈴虫(4) 369〉)

중추절 저녁 출가한 온나산노미야와 마주한 히카루젠지는 방울벌레와 귀뚜라미를 비교하면서 중궁이 방울벌레 소리가 좋아 일부러 잡아다가 풀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장면 앞에서 정원을 가을 들판으로 꾸미고 그 곳에 ‘풀벌레 등도 풀어 놓으시고(この野に虫ども放たせたまひて、〈鈴虫(4)368〉)’라고 했으니 로쿠조인의 세계에 인위적인 자연을 꾸미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로쿠조인의 자연이 히카루젠지의 작위에 의해 구축된 자연이라는 것을 그 자신의 입으로 명언하고 있는 것¹⁹⁾이다. 그리고 보면, 로쿠조인을 조영할 때, ‘원래 있는 연못과 산도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애고 위치를 바꾸어 물의 흐름이나 산의 풍취를 고친(もとありける池山をも、便なき所なれをば崩しかへて、水のおもむき、山のおもむきをあらためて、さまざまに、〈少女(3)72〉)’ 로쿠조인은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구성된 공간이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히카루젠지 스스로의 입을 통해 확인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나산노미야를 귀뚜라미에 비유하기 위해 도입된 방울벌레에 대한 일화에서, 외지에 떨어져 있다가 로쿠조인에 편입된 여성들과 일부러 잡아다가 놓은 방울벌레와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일탈시켜 다른 곳으로 옮겨오게 했더니 다른 벌레들과 섞여 잘 울지도 않더라고 하는 방울벌레와, 떨어진 곳에서 히카루젠지의 방문을 기다리던 그녀들이 로쿠조인 안에 모인 모습은 어딘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히카루젠지의 인위적 배치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히카루젠지의 방문이 빈번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비교대상이 없었던 그녀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가지적으로 만들고 그 차이를 확인하고 비교하게 하는 공간으로서 로쿠조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히카루젠지와 관계에서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모노가타리의 서술이 신분의 걸옷을 벗고 단지 ‘남자(男)’와 ‘여자(女)’²⁰⁾로 표현되었다면 이제 그들은 그들이 거쳐하는 곳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이다.

19) 野村精一「自然」『別冊国文学源氏物語事典』学灯社 1989, p.192.

20) 사랑하는 남녀를 그럴 경우에는 신분이라는 것은 개입하지 않고 남자이고 여자가 되는 것이다. 사랑의 장면에서는 ‘남자’ 그리고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회적 지위, 신분,

이렇게 히카루젠지 영화를 나타내거나 왕권의 상징으로 읽혀지는 로쿠조인이라는 공간 조영은 영화의 양각(陽刻)을 과시하면서 그 이면에는 음각(陰刻)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안에 모인 여성들의 고통을 통해 로쿠조인의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모노가타리가 로쿠조인을 통해 그려내고자 한 것은 로쿠조인의 불교적 이상 세계가 아닌 불교적 이상세계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모습이며 로쿠조인이라는 새로운 왕국을 세움으로써 그 안에 모인 여성들에게는 실체가 없던 서열화가 실제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에게 서열화라는 고통을 안겨준 로쿠조인이 가진 내부적 모순은 결국 히카루젠지 스스로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5. 로쿠조인의 한계-結語를 대신하여

로쿠조인은 그 공간이 폐쇄적인 하나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으며 히카루젠지만이 그것을 점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²¹⁾에 특징이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임시객의 연회는 로쿠조인 내부의 여성들에게는 극소수의 외부와의 소통이다. 그러나 그 소통도 무라사키노우에에게만 허락되었다. 하나치루사토와 아카시노키미는 로쿠조인 내부에 편입되었음에도 로쿠조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 물론, 헤이안의 여성들이 공적인 자리나 연회에 자신의 의지대로 감상하거나 관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버린 여자에 대한 남자, 남자에 대한 여자로 그려진 것이다. ‘남자’ ‘여자’라는 식으로 존칭이 없는 호칭으로 불리었을 때, 사랑의 장면의 클라이맥스인 것이다. (玉上琢弥 『源氏物語評釈第二卷』角川書店 1965, pp.352~35)

예를 들면,

① 여자는 말할 수 없이 슬픔에 잠겨 있다.(女はさらにもいはず思ひ沈みたり<明石(2)252>)

② 남자의 용모와 모습은 또한 말할 것도 없이 최근의 근행으로 아주 얼굴이 여위어 계시는 것도(男の御容貌ありさま、はたさらにも言はず、年ごろの御行ひにいたく面瘦せたまへるしも、<明石(2)254>)

③ 남자는 아주 더할 나위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모습(男は、いと尽きせぬ御さまを、うち忍び用意したまへる御けはひ<末摘花(1)355>)

①, ②의 경우 여자는 아카시노키미(明石の君)를, 남자는 히카루젠지를 가리킨다. 히카루젠지와 아카시노키미가 이별을 앞두고 서로 피로워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호칭이 쓰이고 있다. 또한 ③은 히카루젠지가 스에쓰무하나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히카루젠지의 관직명 등은 모두 제외되고 ‘남자’라고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자가 사랑이라는 관계로 서로 마주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남자’ ‘여자’라는 호칭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히카루젠지에 대해 ‘남자’라는 호칭은 「아카시(明石)」권 이후 사라졌으며, 여성들의 경우에도 로쿠조인에 새로 편입되어 새롭게 히카루젠지의 관심을 받는 다마카즈라를 제외하면 그들의 거처로 호칭이 쓰이고 있음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21) 三田村雅子 『源氏物語—物語空間を読む』ちくま新書 1997, p.107.

로쿠조인에 편입된 이후, 그들은 단지 소리로 로쿠조인 내부의 일들을 추측할 뿐, 그들의 눈은 가려진 눈이다. 즉, 로쿠조인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다시 한 번 폐쇄된 이중의 폐쇄구조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와 동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계층화의 확인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로쿠조인이 위치한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인 로쿠조인 안에 여성들을 각각 한명씩 배치한 히카루겐지는 그 여성들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유일한 남성이다. 로쿠조인을 주재하는 히카루겐지는 그녀들을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통제하고 규율해야 했는데, 그러한 통제와 규율은 히카루겐지 스스로 로쿠조인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경계해야만 하는 우를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마카즈라에 대한 사랑도 “로쿠조인의 주재(主宰)로서 그 세계를 정비하고 통제하며 내외로 과시해야하는 까닭에 가장 엄격하게 자기 행위를 규제하고 가치규범의 확립과 유지에 스스로 얽매이는 것”²²⁾이다.

로쿠조인의 사계사방은 각 지역에 사계절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간’을 공간화하였다고 하여 시공(時空)의 접합적인 세계를 창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로쿠조인에 도입된 사계사방 개념은 로쿠조인 조영 후 춘하추동이라는 사계절을 모두 경험한 이후 다소간 사건을 전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쿠조인 조영 후 사계가 한 바퀴 순환하자마자 전례 없이 강하게 분 가을 폭풍이다. 이 폭풍을 계기로 히카루겐지의 아들 유기리(夕霧)는 로쿠조인의 여성들을 한꺼번에 엿보게 될 뿐만 아니라 히카루겐지마저 바라보는 관찰자로 등장한다.²³⁾

로쿠조인이라는 공간은 히카루겐지의 후처들을 모두 모아놓은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외부침입자가 잠입했을 때 그곳에 속한 모든 여성들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히카루겐지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여성들을 로쿠조인이라는 한 공간에 모아서 배치함으로써 외부에서 침입자가 발생했을 경우, 히카루겐지가 매긴 서열 안에 든 여성을 한 번에 모두 관찰할 수 있다는 허점을 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허점은 유기리를 통해 결국 드러난 셈이다.

히카루겐지는 황거(皇居)와 비견되기도 하는 로쿠조인²⁴⁾에 황거처럼 후처들을 모아 놓는 방식을 도입하였을 뿐, 그 방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을 간과한 격이

22) 秋山虔 『源氏物語の世界』 東京大学出版会 1982, p.125.

23) 로쿠조인을 엿보는 유기리에 대한 지적은 이토 히로시(伊藤博)의 「『野分』の後—源氏物語第二部への胎動」(『源氏物語の原点』 明治書院 1980)와 미타니 구니아키(三谷邦明)의 「夕霧垣間見」(『講座源氏物語の世界』 第5集 有斐閣 1982)를 시작으로 아베 요시토미(阿部好臣)가 「夕霧の恋—システム破壊の視座」(『国文学』 学灯社 1987.11)에서 유기리를 로쿠조인의 ‘시스템 파괴자’로 파악하였다. 이밖에 『겐지모노가타리』 전체의 ‘보고-보이는’ 관계에 대해서는 미타무라 마사코(三田村雅子)의 상세한 고찰이 있다.(『源氏物語の論理』 有精堂 1996)

24) 池浩三 「光源氏の住まい」 『源氏物語講座5 時代と風習』 勉誠社 1991.

된다. 게다가 히카루젠지는 자신의 후처들을 모두 모아놓았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을 엿볼 수 있는 구조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공간 안에 위치함으로써 로쿠조인 안에 스스로도 배치되는 허점을 드러낸다. 그가 자신의 세계로서 주재하는 로쿠조인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 안에 얽매이는 과오를 범한다. 스스로 구획한 공간이지만 자신도 그 공간과 연결된 부분적 존재이기 때문에 히카루젠지도 외부의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은 것이다.

로쿠조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적 이상향으로 불리며 천황을 능가하는 권세를 나타내는 장소로 건재한다. 히카루젠지의 권력 변화는 그의 거처 변동과 궤를 같이 했고, 니조의 동쪽저택에서 로쿠조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여성들의 신분적 차이가 실체를 띠면서 계층화의 구조를 낳았다. 로쿠조인 낙성의 목적 자체가 중궁의 자리에 오를 딸을 낳은 아카시노키미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은 히카루젠지의 섭관정치적 권력지향을 내포하고 있었다. 아카시노키미와 아카시노히메기미를 분리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의도한 로쿠조인은 결코 탈 정치화를 표방한 것이 아니며 로쿠조인은 끊임없이 사회적 권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지향 안에서 스스로 그 구조 안에 배치되어버린 히카루젠지의 한계는 후에 자신의 아들인 유기리의 시선에 노출되면서 그 쇠락의 전조를 예견한다고 할 수 있다.

유기리는 로쿠조인의 여성들과 히카루젠지를 관찰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를 통해 히카루젠지와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히카루젠지 스스로가 로쿠조인이라는 공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로쿠조인에 내재된 공간적 모순은 유기리와 히카루젠지의 관계 역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후에 ‘소문’이라는 미디어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히카루젠지의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로쿠조인의 일부분이라는 공간 설정의 한계로 촉발된 히카루젠지와 유기리의 관계 역전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고를 기하도록 한다.

【参考文献】

- 이진경(1988)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p.26
- Jürgen Joedicke, 진경돈 옮김(2000) 『건축의 공간과 형태』 시공문화사, p.6
- 秋山虔(1982) 『源氏物語の世界』 東京大学出版会, p.125
- 阿部好臣(1987) 「夕霧の恋—システム破壊の視座」 『国文学』 学灯社 11月
- 光安誠司郎(2002) 「柏木と夕霧の会話における<情況><期待><表現><推測>」 『物語研究2』 物語研究会 有精堂, p.34
- 池田節子(1995) 「いまめかし考—玉鬘十帖の光源氏—」 『新物語研究 3 物語<女と男>』 有精堂, p.294
- 池田善孝(1996) 「源氏物語の方法—二条の東院と六条院」 『国語と国文学』 6月, p.11.
- 池浩三(1991) 「光源氏の住まい」 『源氏物語講座5 時代と風習』 勉誠社
- 伊藤博(1980) 「「野分」の後—源氏物語第二部への胎動」 『源氏物語の原点』 明治書院
- シラネ・ハルオ(1992) 『夢の浮橋—源氏物語の詩学』 中央公論社, pp.57~58
- 野村精一(1981) 「六条院の四季の町」 『講座源氏物語の世界』 第5集 有斐閣, p.39
- _____ (1989) 「自然」 『別冊国文学源氏物語事典』 学灯社, p.192
- 林田孝和 外 編(2002) 『源氏物語事典』 大和書房
- 三谷栄一(1967) 『物語史の研究』 有精堂
- 三谷邦明(1982) 「夕霧垣間見」 『講座源氏物語の世界』 第5集 有斐閣
- 三田村雅子(1996) 『源氏物語の論理』 有精堂
- _____ (1997) 『源氏物語—物語空間を読む』 ちくま新書, p.107

要 旨

本稿は『源氏物語』の光源氏の定住空間の一つである六条院という所に伏在している矛盾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光源氏の定住空間の変遷、すなわち二条院から二条の東院、そしてまた六条院という変化の軌跡を探ってみると、それが光源氏の権力伸長と関係のあることが確かめられた。特に、二条院や二条の東院が改築されたのと比べ、六条院の場合は新しく造られたことに着目すると、そこが光源氏の王権を支える空間として機能しているとも言える。これを光源氏の栄華の陽刻だといえれば、六条院の裏面には栄華の陰刻を露呈している。その陰刻とは、六条院の中に配置された女君とそこから排除された女君という一次的な階層化や六条院の中での二次的な階層化を通して現れている。

特に六条院の四方四季の構造は四季はあってもその循環が守られていないため、女君たち、その内でも明石の君と明石の姫君との分離の関係を確認させている。光源氏の離されている女君たちをみんな集まって住ませるといふ六条院の造営の意図は結局、女君たちに分離の原理や身分差を実感させるきっかけになったと言える。

六条院という空間に内在している矛盾は夕霧を通して表面に現われる。夕霧は野分の後、光源氏が主宰する六条院を垣間見る人として登場する。光源氏が自分の権力を示威するために、もしくは権力の獲得のために女君たちを集ませたからこそ、夕霧のような外部の侵入者の視線に六条院の構成員たちのすべてが露出される過ちを犯すことになったと言えるのである。そのうえ、光源氏もその六条院の一部分であるから、夕霧の視線からさげられなかったのであるし、それが彼の六条院という空間設定の限界といえる。そのような限界ゆえ、野分以後夕霧が光源氏との対話で上位を占める、いわば関係の逆転もができた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な六条院の矛盾を考慮すれば、『源氏物語』の二部から表面に浮上する光源氏の凋落は女三の宮の六条院への編入以前である六条院の造営段階からすでに前兆していた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キーワード：六条院の階層化、定住空間の変遷、権力の示威、分離、四方四季、視線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136-753) 서울 성북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209동 1707호
電 話 : 010-7475-0209
e-mail : naya7729@naver.com